



GIST(광주과학기술원) 보도자료

<http://www.gist.ac.kr>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담당	대외협력팀 김미연 팀장	062-715-2020 / 010-5302-3620
	대외협력팀 이나영 행정원	062-715-2024 / 010-2008-2809
자료 문의	학사지원팀 김지훈 담당	062-715-3603

GIST 학생봉사단이 바뀐 놓은 몰도바의 여름 풍경

- GIST 학부생 20명, 7월 한 달간 ICT 및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봉사 재능기부

- GIST(지스트, 총장 문승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합인재 양성 및 국제적 소통능력과 나눔의 봉사정신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파견한 ‘GIST 학생 국제봉사단’이 몰도바*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몰도바는 1인당 GDP가 \$2,596로 세계 195개국 중 하위 29%에 해당하며,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위치한 동유럽의 작은 나라이다. 소련의 해체와 함께 1991년 독립한 몰도바는 정치 안정, 부패 척결, 경제 성장 등의 복합 과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IT 분야는 몰도바에서 가장 유망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IT·전자 제품과 자동차, 그리고 K-Pop의 강국인 우리나라는 오늘날 몰도바의 모델 국가로서 선망의 대상이다.

- GIST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공동으로 몰도바에 파견한 ‘2018 월드프렌즈 ICT봉사단’이 7월 한 달간의 교육봉사 재능기부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 GIST-NIA 월드프렌즈 ICT봉사단은 지난 2014년에 시작하여 2015년부터는 매해 여름, 몰도바에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 GIST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ICT봉사단은 매년 6월 말 출국하여 7월 중 4주간 교육봉사 활동을 수행한다. 2014년부터 17년까지는 매년 16명을, 올해는 20명을 선발하여 현지에 파견하였다. 4명이 한 팀을 이루며, 팀당 1개 기관을 맡아 ICT 및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한다.

- 몰도바는 겨울방학이 짧은 대신 6월부터 8월에 걸친 긴 여름방학이 있지만, 학생들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하다. 올해 GIST는 몰도바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립대학인 몰도바국제자유대(ULIM)와 정보접근센터(IAC), 수도 키시나우 중심가로부터 북동쪽으로 15km 떨어진 농촌 부데슈티(Budești)의 어린이·청소년 회관과 북쪽으로 10km 떨어진 주거지역 스토우체니(Stăuceni)의 복지회관에 ICT봉사단을 파견하였다.
-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지식과 영어 구사능력을 겸비한 GIST 학생들이 몰도바를 찾아 수업을 개설하고 현지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자 몰도바국제자유대 한국어·한국문화센터 한호진 센터장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몰도바의 새로운 여름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감탄했다.
 - ‘꼬마애들’ 팀의 팀장인 좌윤경 학생(GIST대학 전기전자컴퓨터전공 3학년)은 “작년에 봉사활동을 하고 온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했는데 때문지 않고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한 한 달의 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특히 “아두이노(Arduino) 키트를 갖고 가 어린 아이들에게 프로그래밍 교육을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따라와 줘 고맙고 보람을 느낀다”며 소감을 전했다.
 - 정보접근센터에서 ICT 및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모두 이수한 알렉산드라 뱅타스(Alexandra Bantas) 양(16)은 “몰도바에서 배우기 힘든 C++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수 있어 정말 놀랍고 소중한 경험이었다”면서 “이 수업을 계기로 계속해서 ICT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꿈도 꾸게 되었다”며 봉사단에 고마움을 전했다.
- 문승현 총장은 7월 13일(금)과 16일(월), 이틀에 걸쳐 몰도바 ICT봉사단의 수업 현장을 찾아 GIST 학생들이 교육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4개 기관을 모두 돌아보며 GIST 봉사단원 20명을 격려했다.
 - 문 총장은 16일 오후, 몰도바국제자유대 일리안 갈벤(Ilian Galben) 총장을 만나 IT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교의 교류협력 증대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몰도바국제자유대 발렌티나 키우마첸코(Valentina Ciumacenco) 국제협력센터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GIST 학생 봉사단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여름특별강좌는 몰도바에서 가장 인기있는 교육 프

로그램이다”며 “앞으로도 ICT봉사단 파견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몰도바의 파벨 필립(Pavel Filip) 총리가 7월 18일(수), 정보접근센터의 수업 현장을 방문하여 GIST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격려했다. 파벨 필립 총리는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재직 시절이던 지난 2015년에도 GIST-NIA 월드프렌즈 ICT봉사단의 교육봉사에 관심을 갖고 수업 현장을 찾은 바 있다. <끝>

[사진 설명]



▲ [사진 1] GIST 학생 봉사단이 수도 키시나우 중심가로부터 북쪽으로 10km 떨어진 주거지역 스토우체니(Stăuceni)의 복지회관에서 ICT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2] GIST 문승현 총장이 몰도바 ICT봉사단의 수업 현장을 찾아 4개 기관을 모두 돌아보며 GIST 봉사단원을 격려하고 있다.



▲ [사진 3] GIST 문승현 총장이 몰도바국제자유대에서 일리안 갈벤 총장 및 주요 보직자와 양교의 교류협력 증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